

## 무라카미 성터

무라카미 성에는 무라카미 중심부의 동쪽에 자리한 가규산이라는 135 미터 언덕의 숲이 우거진 정상에 돌 성벽과 큰 성문의 잔해, 망루의 기초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다이묘 영주들이 무라카미 지역을 통치하던 에도 시대(1603-1867) 때 약 250 년 동안 마을 위에 우뚝 솟아 있었지만 전투에서 한 번도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니다.

가규산은 1500 년대 초에 라이벌 가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의 무사 집단이 언덕의 동쪽 경사면에 전초 기지를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요새화되었습니다. 요새는 주로 마른 해자와 흙벽으로 구성되었으며, 가파른 경사면을 방어 지점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요새는 1600 년대 초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지금의 도쿄)에 막부(무가 정권)를 세우면서 방치되었습니다. 막부는 무라카미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영지의 다이묘(각 지방의 영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신들을 임명했습니다. 역대 다이묘들이 가규산 서쪽에 사무라이를 위한 거주지를 건설하면서 성곽 마을은 확장되었습니다. 언덕의 서쪽 가장자리에 높은 성벽과 돌담, 그리고 언덕의 평평한 봉우리에 세워진 3 층 목조 망루를 갖춘 새로운 성이 지어졌으며, 건설에는 50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이묘는 성터 입구 근처 산기슭에 있는 저택에 거주하며 가끔 사무라이를 보내 언덕 위를 순찰했습니다. 에도 시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고, 성은 주로 다이묘의 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남아 있는 성벽 일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큰 돌을 공들여 자르고 쌓아 올린 성벽은 표면이 완벽에 가깝게 매끄러웠지만, 방어적인 이점은 없었습니다.

1667 년 낙뢰로 인한 화재로 방어와 감시를 위해 설치된 망루가 파괴되었지만 성의 나머지 부분은 2 세기 동안 견뎌냈습니다. 막부에 충성하는 세력과 제국 통치로의 복귀를 지지하는 세력 간에 벌어진 보신 전쟁(1868-1869)에서 무라카미 사무라이들은 진격하는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이묘의 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천황(1852-1912)을 필두로 한 새 정부가 근대화에 착수하면서 1875 년에 해체된 이 성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라카미 성의 언덕 꼭대기는 아홉 번의 급경사를 오르면 약 15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옛 성곽 마을과 미오모테 강, 동해(일본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